



# 4·3 광풍속 피난 집단 거주 흔적 발견

### 4·3기념사업위-4·3통일의 길, 노로오름 조사 결과 발표 정상 인근 분화구서 집터와 우물, 생활용품 등 발견돼 보초터 주변엔 탄피 다수... 토벌대와 치열한 전투 추정

제주시 애월읍 노로오름 일대에서 4·3의 소용돌이를 피해 숨어 지낸 당시 주민들의 집터와 생활용품, 탄피 등이 발견되며 제주4·3 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될 수 있겠는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4·3통일의길 마중물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로오름 일대 4·3유적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171차례 걸쳐 진행됐으며 노로오름, 돌오름, 한대오름, 빈네오름, 머쳐왓, 쌀오름 등 14곳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조사의 배경으로 “제주 4·3 당시 중산간 지역 위로 약 2만 여명이 올라가 살았다는 기록 등이 있어 이러한 흔적을 찾고 기록하는 것이 4·3연구의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70여년 세월이 무너뜨리고 물어버린 흔적들을 현장에서 살려 4·3의 다양한 기록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 애월읍 노로오름 지역을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매 구역마다 집터와 생활용품, 농기구, 탄피 등 당시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유물들이 발견됐다. 특히 노로오름 정상에서 북서쪽 500m 지점에는 ‘장태코’라 불리는 큰 분화구가 관심을 모았다.

장태코 주변으로 돌을 쌓아 살았던 집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분화구 남쪽으로는 우물터의 흔적

도 발견돼 지형적 조건과 천연 요새로서의 이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초를 서던 보초터가 일정한 간격으로 발견되며 각종 탄환과 탄피 등이 있어 이곳에 주둔했던 무장대와 토벌대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장태코처럼 일정한 지역을 비교해 잘 남아있는 집터, 보초터, 전투 흔적 등 다양한 4·3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없었다”며 “하루빨리 이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와 그에 따른 보전과 관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로오름뿐만 아니라 조사를 진행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발굴된 유적·유물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적인 자료 부족으로 개인·단체·기관이 갖고 있는 구술·증언 등 자료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해 훈련된 인원과 장비가 동원돼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발굴된 유물 보존과 관리를 위한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4·3기념사업위원회와 4·3통일의길 마중물이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로오름 일대 4·3유적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근기자



꽃자왈 공유화 캠페인에 참여한 삼성여자고등학교 '데메테르 4-H' 동아리.

## 어린이부터 기업과 종교계까지 ‘열기’

### 꽃자왈 공유화 캠페인 성료... 1억1900만원 모금

제주의 허파이자 생명의 숲인 꽃자왈의 가치 인식 확산과 보전을 위한 공유화 기금 모금 캠페인이 뜨거운 관심 속에 올해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제주 꽃자왈 공유화 재단은 ‘2022 꽃자왈 공유화 기금 모금 릴레이 캠페인’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종교계, 사회단체·기관과 골목상권, 도내·외 기업들 동참 등 전국적인 참여 속에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살이 아름다운 꽃자왈 동반자’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한 캠페인은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41곳의 기업·단체를 비롯하여 총 128명이 기금 모금에 동참해 1억 1900만원을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으로 걸기만 해도 2만원씩 꽃자왈 공유화 기금으로 적립되는 ‘꽃자왈 워킹 챌린지’ 행사에 SNS를 통해 759건의 참여 인증이 완료돼 당초 목표였던 10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며 올해 총 꽃자왈 공유화 기금은 1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KT CS 루키어린이집, 가리따스유치원, 안덕초등학교 3학년 2반, 표선고 동아리 ‘여울’, 삼성여고 동아리 ‘데메테르 4-H’ 등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도 꽃자왈 공유화에 힘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장학금을 전액 기부한 삼성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데메테르 4-H’ 현은정 학생은 “꽃자왈이 개발로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꽃자왈은 우리가 보전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탐라 로타리클럽 등 도내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주)카카오, (주)아모레퍼시픽의 룡테크 등 도내·외 40여개 기업들과 골목상권, 천주교 제주교구 중앙성당 등 종교계까지 적극 동참하며 꽃자왈의 가치 인식의 전국적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변호사 사칭 베트남 여성 검거

### 불법체류자 상대 범행 “내가 빼내 줄게” 접근

변호사를 사칭해 보석시켜주겠다고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한 브로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검거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지난 5월 검거된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을 상대로 보석(보호의 일시 해제)시켜 주겠다고 사건 처리비 명목으로 약 59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고 어선의 선주를 찾아가 탄원서를 받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원 비자(E-10)로 취업한 뒤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

원 30대 B씨를 A씨의 가게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도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SNS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서 사진과 보석을 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홍보하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체류자 급증에 편승한 신종범죄로 보고 공범자와 추가 피의자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 ‘아라동 4·3길’ 개통

8번째 4·3길인 아라동 4·3길이 개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월평동 마을회관에서 아라동 지역주민, 4·3유족 및 관련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라동 4·3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아라동 4·3길은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8번째 4·3길로 선정됐으며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관계자, 4·3전문가 등이 수차례 현장답사와 회의를 거쳐 총 17.3km 길이의 2개 코스를 조성했다.

이태영기자

## 장애인시설서 학대 의혹 서귀포경찰서 수사 착수

서귀포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무원과 직원 등이 입소자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2명과 사회복지무원 2명 등 4

명이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인은 시설 직원과 사회복지무원 등이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입소한 장애인 8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관련 영상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포함해 빠르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 페르카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추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검색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